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자기 자신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낸다는 걸 증득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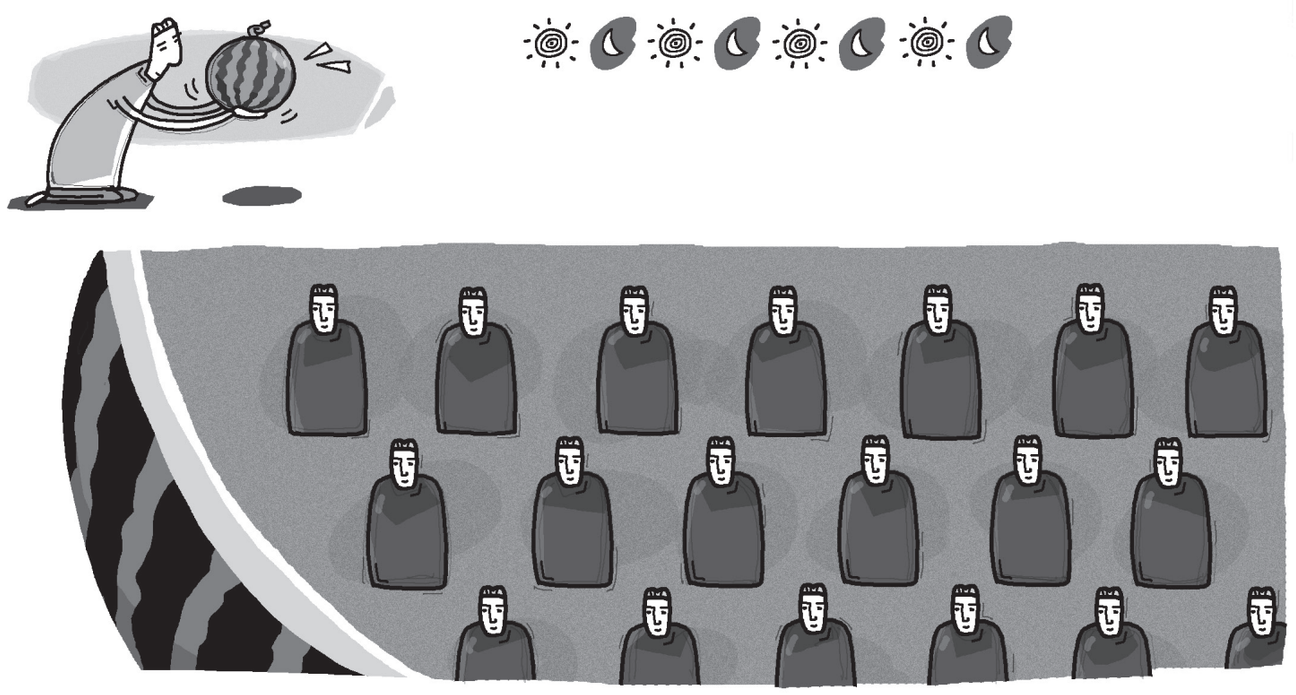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없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체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가 있고 바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벌어진 겁니다. 어느 종교가 어떻고 어느 종교가 어떻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는, 양면을 다 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佛)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요 교(敎)는, 우리가 나라고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교가 이렇게 있으면 어느 상점 상점이 간판을 가진 거나 똑같은 일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어디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끝 간 데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대로, 불교 그대로 생명이자 영원한 우리 삶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다 가톨릭교다 또는 불교다 종파가 다르다,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끄달린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도 없거니와 자기 자신의 행복도 자유스러운 삶도 영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는데 진짜로 이 도리를 알아야 생활 불교이고, 생활이 즉 참선이요 좌선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좌선입니다. 이 하나하나 발자취 걸어 다니는 것도 바로 한도량의 한발인 것입니다. 이 뜻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공부를 해야만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알 것입니다. 부처님은 "여러분 각자 마음을 증득하라. 여러분 각자 사람부터 돼라. 부드러워라. 폭을 넓혀라." 하고 설하셨습니다. "폭을 넓혀라" 그 소리는 '지혜로워라' 하는 소립니다. "지혜로워라. 모든 것을 너의 소견으로만 살지 말고 남의 소견에 서서 좀 양보할 줄 알고 좀 더 사랑할 줄 알고 지혜로울 줄 알아라. 과거에 살던 그 모두의 인연 소치들이 네 몸에 잔뜩 모여서 지금 고덩어리가 돼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덩어리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체내에는 수많은 생명들과 수많은 의식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론적인, 학술적인 의학이 아니라 정신적인 의학이 돼야 하고 우리 생활도 정신적인 생활이 돼야 하고 노동도 정신적인 노동이 돼야 하고, 모든 게 정신적인 데서만이 현실로 나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시다시피 지금 인공위성을 띄우고 전파를 통해서 세계를 전부 두루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만한 구석에서, 아니 지구가 한 항아리라면 항아리 안에서 살기도 뭐한데 지금 국내에서도, 세계 안에서도, 또는 내 몸 안에서도 나를 못 끌고 간다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며 어떻게 불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체내에 있는 그 중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시니까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얼마나 많으냐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이름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이 많은 것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거기서 악도 나오고 선도 나오고 그러는 반면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인과로 만난 인연들은 그 속에서 먼저 가서 안 되게 하고, 벌써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면 먼저 가서 방해를 놓고 그러니 여러분 몸이 가면 뭘 합니까? 그러니까 정신세계는 미래의 세계라고 볼 수 있고 현실은 미래에서 볼 땐 과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自神)'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집을 빈집으로 만들지 말고 주인 있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주인이 없으면 온갖 것이 다 들락거리고, 세균성 영계성 또는 업보성 유전성,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빈집이 되기 때문에 들락날락하고 온갖 것을 다 파괴를 시키고 이래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파괴가 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서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가야만 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정신세계의 노예 생활이라 이 소립니다.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원을 내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씩 신문을 여러분한테 항상 드리곤 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화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태초가 어디냐?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고 거슬러 내려갈 것도 없죠. 여러분이 난 것이 바로 태초요, 여러분 몸이 이 세상에 생긴 것이 화두입니다. 그런데 화두를 딴 데 가서 찾는다면, 딴 데서 받는다면 그건 부처님 당시에도 없던 일입니다. 그 후에 너무 선맥이 미약해지고 모두 공부하는 사람들이 미약해지니까 큰스님들께서 화두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버릇이 되고 일과가 돼 가지고 항상 '이게 뭣고?' 이럽니다. 뭐긴 뭡니까? 이 세상에 난 것이 여러분 공한 그 몸뚱이, 그 자체 속에 중생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바로 혹성 덩어리죠. 의정이라는 것은 과거에 살던 내 조상부(父)와 지금 현재에 사는 자(子)와 상봉을 해야만이 스스로 의정이 터지고 스스로 의정이 나고, 스스로 '그 뭣고?'가 돼서 '세상의 그 입자가, 원자에서 입자가 화해서, 수만이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 이 털구멍을 통해서 들락거리는구나! 이게 무엇일꼬?' 하고 그 의정이 터지는 거지 남이 줘서 의정을 가지는 겁니까?

또 한 가지는 그럼 의정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명백하다면, 여러분 대신 똥 눠 주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대신 자 주는 사람 없죠? 아무리 친철해도. 먹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파 주는 사람도 없고 죽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 왔다 혼자 걸어갑니다. 내 몸뚱이도 내가 갈 때 그렇게 씻기고 입히고, 더울 때 시원한 옷 입히고 추울 때 더운 옷 입히고 만지고 씻고 바르고 이렇게 해 줬는데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돈도 아무리 많고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서 돈을 쫓아갔지 돈이 여러분을 좋아해서 쫓아다닙니까?

돈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 형제도 또는 자식과 부부지간도 배웅이나 가면 갔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누가 갈까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주인공은 여러분을 형성시켰고, 형성시킨 사대가 흩어질 때는 바로 주인공과 둘이 아니게 한뜻 한마음 한 행동, 바로 공식하면서 서로 하나가 돼서 미래세계에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도리를 모르고 미래의 세계에 간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허공에서 떠돌거나 착이 있어서, 습이 있어서, 아집 아상이 있어서, 나라는 게 있어서 그 집 언저리에서 뱅뱅, 자기 아는 대로만 거기에서 돌다가 다시금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모습을 딴 걸로 태어나는 수가 많죠.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어서 또 인간으로 세 번 태어나기가 극히 어렵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악도 놓고 선도 놔라. 선을 위주로 하면 악이 따르고 악으로 가면 선이 따르기 때문에 네 불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느니라. 이 불바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